





김해 NHN 데이터센터·도시개발 사업 순항할까...시의회 우려

송고시간 | 2022-03-17 15:44













이정훈 기자

광주 아파트 신축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시행자



김해시청 전경

[연합뉴스 자료사진]

(김해=연합뉴스) 이정훈 기자 = 경남 김해시가 인터넷 기업 NHN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시 의회가 우려를 표했다.

엄정 김해시의원은 17일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시행하는 '김해 NHN 인터넷데이터센터·스마 트홈 도시개발사업'을 시정 질문했다.

이 사업은 김해시 부원동 김해시청 맞은편 남해고속도로와 김해대로 사이 부지 3만867㎡에 NHN 데이터센터와 아파 트를 짓는 사업이다.



사업시행자는 지난 1월 신축공사 중 외벽이 무너져 근로자 6명이 숨진 광주광역시 아파트를 시공한 현대산업개발이다.

엄 의원은 먼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무단 구조변경, 공사 관리부실 등 인재로 결론 났는데도, 김해시는 국토부 등 관 련 기관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는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한다고 질타했다.















핫뉴스 →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 등 징계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...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한국 유튜버,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...

박찬욱, 칸 초청에 "기쁜 봄소식...오래 기립박수 칠...



[연합뉴스 자료사진]

엄 의원은 이어 이 사업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.

엄 의원은 사업 부지가 자연녹지·생산녹지로 용적률이 100%였지만, 일반상업용지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720%까지 상승해 사업자 이익이 극대화됐다고 주장했다.

또 김해공항 인근으로 아파트 고도를 100m로 제한해야 하지만, 아파트 높이가 142m에 이른다고 지적했다.

답변에 나선 강삼성 도시괸리국장은 기반시설과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면 토지 실 이용률은 50% 정도여서 과다한 차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.

아파트 고도 역시, 민간공항은 높이 제한이 100m가 맞지만,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.

강 국장은 이어 광주 사고 여파로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건축은 무기한 연기하고 먼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으로 통 보했다고 보고했다.

김해시는 사업부지 내 사유지 보상률이 70%를 넘었고, 아직 협의 보상을 하지 못한 토지는 경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 회 재결을 거쳐 확보할 예정으로 7월께 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.



김해시의회 본회의 전경

[김해시의회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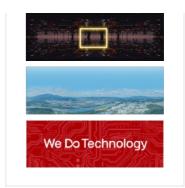
seaman@yna.co.kr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22/03/17 15:44 송고

#김해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● 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싱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현장 영상 →

▶ 01:18

[영상]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니 명상] 곡사포·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든 링컨 등 후보군"

▶ 02:22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, 2년 1개월만 종료...마스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…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"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…美와 더 강력한 동맹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'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"

댓글 많은 뉴스

】 김건희 여사 팬카페,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② 136 찰에 고발

2 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☑ 60 대병원 자원봉사

3 '유퀴즈' 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⊕ 58 안 맞아"(종합)

5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 ◉ 38 힐예정"

뭐하고 놀까? ## 讲 →



















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 **뉴스 상품**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

테미별뉴스 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**출판물**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

뉴스+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**광고** KTX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/홈페이지 출판물

 모바일 뉴스
 모바일 앱
 보다시진
 이미지
 그래픽
 동영상
 인물

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ي Español Français **관련사이트** 연합뉴스TV 인모맥스 한민족센터 K컬쳐기확단(K-ODYSSEY) 채용 IR클럽 #홍

계약사/제휴문의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90.1229 | 발행일자 1990.12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 성기홍 [편집인] 조채희

Yonhapnev